

1/9/22

설교 제목: 제사장 위임식 규례와 상번제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29 장 1-46 절

- (출 29:1)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절관주** 레 8:2
- (출 29:2)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 (출 29:3)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 (출 29:4)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 (출 29:5)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겹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 (출 29:6)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 (출 29:7)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 (출 29:8)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 (출 29:9)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 (출 29:10)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 (출 29:11)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 (출 29:12)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 (출 29:13)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 (출 29:14)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절관주** 레 4:11, 레 4:12, 히 13:11
- (출 29:15)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 (출 29:16)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 (출 29:17)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뜯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 (출 29:18)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 (출 29:19) ○너는 다른 숫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절관주** 레 8:22
- (출 29:20)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 (출 29:21)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절관주** 히 9:22
- (출 29:22) 또 너는 그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 (출 29:23)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절관주** 레 8:26
- (출 29:24)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여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 (출 29:25)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 (출 29:26)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여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이니라
- (출 29:27)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절관주** 신 18:3
- (출 29:28)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 (출 29:29)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절관주** 민 20:26
- (출 29:30)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 (출 29:31) ○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절관주** 레 8:31
- (출 29:32)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절관주** 레 10:14
- (출 29:33)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 (출 29:34)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절관주** 레 8:32
- (출 29:35)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 (출 29:36)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 (출 29:37)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절관주** 출 40:10, 마 23:19

매일 드릴 번제(민 28:1-8)

- (출 29:38)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 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절관주** 민 28:3, 단 9:27, 단 12:11
- (출 29:39)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절관주** 겔 46:13
- (출 29:40)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와 짙은 기름 사분의 일 힌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더할지며
- (출 29:41)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절관주** 왕상 18:29, 스 9:4
- (출 29:42)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절관주** 단 8:11, 민 17:4

(출 29:43)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출 29:44)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절판주** 레 21:15

(출 29:45)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 29:46)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절판주** 출 20:2

본장은 제사장의 위임 예식과 상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모세가 가지고 있던 종교 사법 행정 3대 권한 중 종교에 관한 권한 즉 제사장직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라고 하시며 위임식 절차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기에 앞서 그들을 성별케 하여 위임식을 준비케 하라고 하십니다.

(출 29:1)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출 29:2)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출 29:3)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출 29:4)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출 29:5)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겹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출 29:6)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출 29:7)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출 29:8)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출 29:9)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어린 수소 하나는 속죄제를 위한 것이며 흠 없는 숫양 둘은 각각 번제와 화목제를 위한 것입니다. '어린 숫소, 흠 없는 숫양'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 바르는 일입니다.

모든 복식을 다 갖추었다하여도 관유를 부음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제사장 됨이 바로 기름 부음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부었을 때 그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 옷깃까지 흘러 내렸던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시 133: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시 133: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기름 즉 성령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교회)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감탄하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고 했던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움 곧 영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의 머리에 부음 받은 관유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중 속죄제에 관한 규례

수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죄 사함을 받은 후에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드리는 번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출 29:10)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출 29:11)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출 29:12)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출 29:13)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출 29:14)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희생 제물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시킨 후 그 수송아지를 잡아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대신 인간의 죄를 사해 달라는 간구 행위입니다.

일단 희생 제물로 드러진 짐승은 인간의 죄를 짊어진 불결한 것이므로 더 이상 거룩한 성소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를 수 없고 그런 연유로 진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 첫 순서로 속죄제를 드려 제사장직을 위임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회개케 하였습니다.

속죄제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인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담당할 대제사장 역시 죄인임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아론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임을 지적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백성인 우리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주셨던 것입니다.

예표로 세운 대제사장과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다른 점입니다.

이어서 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출 29:15)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출 29:16)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출 29:17)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출 29:18)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 제물은 속죄 제물과 달리 내장 뿐만 아니라 그 고기와 머리 다리 부분까지 단 위에 모두 태워야 합니다.

번제 제물은 인간의 죄를 짊어진 속죄 제물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상징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피 제사로 드리는 인간의 기꺼운 순종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 중 화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출 29:19) 너는 다른 숫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출 29:20)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출 29:21)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출 29:22) 또 너는 그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나머지 숫양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화목 제물로 잡은 숫양의 피를 제사장의 주요 신체 부위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의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피와 관유를 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에 뿌리는 것은 피에 의해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의 죄가 가리워지며 기름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들을 흔들여 요제를 지내라고 하십니다.

(출 29:23)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출 29:24)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여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출 29:25)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모세가 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넘겨 주는 것은 곧 자신의 제사장직을 그들에게 이양하고 정식으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흔들었다가 내리는 것으로 번제나 화목제 소제 등과 같이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 지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다시금 제사장이 자신의 양식으로 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이나 백성들의 십일조를 그들의 분깃을 주십니다.

(출 29:26)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여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이니라

(출 29:27)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출 29:28)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대제사장직은 종신 세습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죽으면 대제사장직을 아들에게 넘겨 주는데 그때 의복도 물려 주라고 하십니다.

(출 29:29)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출 29:30)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출 29:31) 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출 29:32)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출 29:33)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출 29:34)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후에 아들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최초의 대제사장이 치른 것과 동일한 위임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위임식은 7 일 동안 행해졌습니다.

성경에서 7 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이 7 일 동안 행해졌다는 것은 '완전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출 29:35)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출 29:36)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출 29:37)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매일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상번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출 29:38)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일 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출 29:39)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출 29:40)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와 짙은 기름 사분의 일 힌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더할지며

(출 29:41)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출 29:42)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출 29:43)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출 29:44)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출 29:45)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 29:46)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상번제는 번제 소제 전제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더하여 드리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속죄제나 속건제와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적인 헌신의 삶을 나타냅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는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상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상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위임 예식을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임식은 시작에 불과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번제를 언제까지 계속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번제로 자신의 피를 전제로 드려주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번에 드려주신 번제와 전제로 말미암아 제사장 된 우리가 상번제를 드려야할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전제 곧 순교를 헌신의 절정으로 여겼습니다.

(빌 2: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번제(헌신)로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때까지입니다.